

띠 다 권 아자 아자!!

새 해가 밝았다.

2005년 을유년 닭띠의 해가 시작됐다.

새벽을 알리고, 빛의 도래를 예고하는 상서로운 짐승, 닭.

더불어 부지런함과 용맹함의 상징인 닭의 해를 맞아서,

닭만큼이나 열심히 살고 있고,

또 살아갈 KISTI 닭띠 직원들의 새해 소망을

들어보는 코너를 마련했다.

이정희, 이일형, 고병열, 노경란, 송장현

이 다섯 명의 닭띠 직원들과 함께

희망찬 새해를 설계해 보면 어떨까.



2005



글_이정희 책임연구원
슈퍼컴퓨팅사업실
jhlee@kisti.re.kr

대덕연구단지기관장협의회 사무국장
슈퍼컴퓨팅 인프라 구축 담당

Q

- 1_2004년 나의 2대 뉴스는?
- 2_2005년 나의 2대 뉴스는 '이것' 이었으면 좋겠다?
- 3_10년 뒤 나의 모습을 짧게 묘사해 본다면?
- 4_나와 닭의 닮은 점?

A

1

• e-Science 환경 구축

정책부서에서 슈퍼컴퓨팅센터로 자리를 옮기자마자 e-Science 환경구축과제 기획팀에 참여하여 정신없이 뛰어 다닌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e-Science 관련 자료를 작성하느라 6~7명의 과제 기획팀이 하나가 되어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일, 걱정으로 가슴이 두근거리던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음을 기억한다. 신규로 사업을 창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실감 할 수 있었다.

• 16년 동안 1042번 올랐습니다.

인터넷과학신문(Sciencetimes지)에 나의 등산에 관한 기획기사가 게재되었던 일이 오래 기억될 것 같다. "16년 동안 1042번 올랐습니다." 라는 제목의 기사가 그것이다. 그리고 계룡산, 그 산에서 나를 몰아지경으로 빠뜨리게 했던 신비로운 사건들, 그것들을 나의 일기장속에 간직한 것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일이었다.

2

• 슈퍼컴퓨팅 관련 탄탄한 정책 수립에 일조할 수 있었으면 ...

슈퍼컴퓨팅 자원이 국가과학기술 혁신의 주요 전략 자원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탄탄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일조하고 싶다. 슈퍼컴퓨터는 군대에 비유하면 항공모함과 같은 위력을 갖는다. 이제는 보유보다는 활용능력이다. 슈퍼컴퓨팅 관련 정책을 잘 수립해 국가 과학기술 수준을 높이는데 일조하고 싶다.

• 산과 함께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역시 산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이제 나에게 산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 산에 머무르지 않고 내 삶의 지혜를 밝히는 마음의 산이다. 산은 답을 알고 있다. 그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산에 가면 풀리지 않는 것이 없다. 그래서 나는 항상 생각하고 있다. '계룡산은 알고 있다고...' 올해에도 계룡산행의 역사를 계속 이어나가고 싶다.

3

10년 뒤에도 나는 그동안 살아왔던 것처럼 항상 젊음을 유지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이다. 나에게에는 언제나 시작이 있을 뿐이다. 10년 뒤에도 나는 항상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이다. 나의 나이는 지금보다도 10살을 더 먹게 되겠지만, 삶에 대한 열정과 감동은 결코 바뀌지 않을 것이다. 내 삶에서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무엇(WHAT)이 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HOW) 사느냐다.

4

닭은 어둠을 지나 사람들에게 새벽을 알린다. 나도 내가 관여하고 있는 조직에서 닭처럼 시작을 알리는 것을 좋아한다. 그리고 닭은 앓아 있기보다 먹이를 찾아 항상 움직인다. 나도 여러 가지로 바쁜 시간을 보낼 때, 내가 닭띠라 바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 일이 많다. 닭은 생존을 위해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지만 나는 먹이보다는 삶의 지혜를 찾아 쉬지 않는다.

A



클_이일형 책임연구원
 나노정보분석실
 ihlee@kisti.re.kr
 나노기술정책 및 기술동향 분석
 나노기술연감 발간
 나노기술전문가협회 및
 나노기술정보자문위원회 운영 등

- 1_2004년 나의 2대 뉴스는?
- 2_2005년 나의 2대 뉴스는 '이것' 이었으면 좋겠다?
- 3_10년 뒤 나의 모습을 짧게 묘사해 본다면?
- 4_나와 닭의 닭은 점?

- 1 • 처음으로 단장 되다.
 중국과 인연을 맺고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하면서 힘들고 보람 있는 일도 많았지만, 지난해엔 “기초·기반 연구개발정책 추진전략 조사단” 단장으로 임명 되어 과학기술부, KISTEP 전문가들과 함께 중국 북경과 서안에서 멋지게 조사임무를 완수했다. 평가 역시 흡족한 것이어서, 2004년도에 받은 큰 선물이었다.
- 몸짱!! 방송 타다.
 인터넷 신문 판지일보가 뽑은 봄날특공대에 100대 1의 경쟁을 뚫고 당당히 선발. 봄날(몸짱) 아줌마, 삼성병원 주치위와 함께 10주간 열심히 운동도 하고 KBS, SBS TV에도 출연했다. 10kg 감량이라는 즐거운 결과만큼이나 행복한 시간들이었다.
- 2 • 국내 최고의 나노정보센터 화이팅!
 나노정보 협력네트워크를 30개 기관으로 확대하고 나노정보포럼을 2회 개최하는 등 우리 나노정보분석실을 명실상부한 한국을 대표하는 나노정보센터로 당당하게 자리매김 시키겠다.
- 몸짱 전성시대를 열다.
 분원에 새로 생긴 헬스 시설을 적극 활용해 봄날특공대 이후 스리슬쩍 늘어버린 체중을 다시 줄이겠다. 몸짱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마음짱이 되고 싶다.
- 3 •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전문성과 인덕을 고루 갖춘 존경받는 리더가 돼 있을 것이라고 상상한다.
 그 상상이 꼭 이뤄졌으면 좋겠다.
- 4 • 인간에게 매일 신선한 계란과 닭고기를 제공하는 닭처럼 다른 이들에게 항상 무언가 도움을 주고 싶어 하며 열심히 사는 모습.

A



클_고병열 선임연구원
 산업정보분석실
 cohby@kisti.re.kr
 기술시장 동향의 심층 분석·연구,
 기술시장 정보 분석 기법개발
 신규유망 사업 영역 발굴 등

- 1_2004년 나의 2대 뉴스는?
- 2_2005년 나의 2대 뉴스는 '이것' 이었으면 좋겠다?
- 3_10년 뒤 나의 모습을 짧게 묘사해 본다면?
- 4_나와 닭의 닭은 점?
 or 다른점?

- 1 • 호주 연수에서 배운 것
 호주로 e-learning 및 business skill 관련 연수 다녀온 것이 기억에 남는다. 적극적 학습방식을 습득할 수 있었고, KISTI 선후배들을 좀더 가까이에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였다.
- 아파트 장만하다.
 개인적으로는 응봉동에 아파트를 장만한 게 최고의 뉴스였다.
- 2 • 내실있는 연구원으로 거듭나기
 개인적으로 역량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3대 분야에서, 올해 안에 일정수준까지의 내실을 다지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보다 심도 있고 파급효과가 큰 성과를 내는 해가 되었으면 한다.
- 마인드코트를 성공
 스트레스 및 피로의 근원이 대부분 예민하고 복잡한 성격 때문이 아닌가 싶다. 보다 여유로운 성격으로 개조하고 싶다. 그리고 나면 지금까지 어려움이 많았던 일들을 보다 쉽게 이뤄낼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마인드코트들의 방안은 모색중이다.
- 3 •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가 있는 연봉 △△억원의 평범한 가장. 그렇지만 지금보다 신체적·정신적으로 훨씬 밝고 건강한 사람일 것이다.
- 4 • 쓸데없이 돌아다니며 닭짓하기, 닭IQ 수준의 건강증, 꾸벅꾸벅 졸기 등 별로 좋지 않은 것만 닭은 듯.
 • 하지만, 닭처럼 새벽에 일어나는 것을 싫어한다. 또한, 싸움닭한테서 근성을 배우면 좋을 것 같다.

A



클 노경란 선임연구원
해외정보실
infor@kisti.re.kr

KISTI가 입수하는 다양한 정보자원 (아날로그, 디지털 형태)을 수집, 관리 하는 등 자료수집과 관련된 전반적인 자원개발업무를 수행.

- 1_2004년 나의 2대 뉴스는?
- 2_2005년 나의 2대 뉴스는 '이것' 이었으면 좋겠다?
- 3_10년 뒤 나의 모습을 짧게 묘사해 본다면?
- 4_나와 닭의 닭은 점?

- 1 • 처음으로 자원개발업무를 맡다.
입사한 지 10년 동안 돈 다루는 업무를 해보지 못했는데 2004년 한 해 동안 KISTI 정보자원개발에 할당된 약 30억원을 직간접적으로 집행하게 된 것이 인상 깊었다. 특히 자원개발부분은 그동안 접해보지 못한 전혀 생소한 업무였기 때문에 어려움도 많았지만, 보람도 많았다.
- 박사 교과과정 이수
박사 교과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일 주일에 몇 개의 페이지를 읽고 ppt를 작성하느라 수많은 밤을 하얗게 새웠다. 물론 그동안 투자한 돈도 엄청났다. 하지만 교과과정 이수를 모두 끝내고 나니, 고생한 만큼 정말 값지고 보람된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든다.
- 2 •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싶다.
어떤 일을 맡게 될지 모르지만 그 업무를 차질 없이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 특별한 것은 없어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삶을 꾸려나갔으면 좋겠다.
- 박사학위를 향한 한 발 전진
박사학위 논문작성을 위해 관련 연구테마를 잡고 관련연구들을 조사하고 어느 정도 논문 초안을 작성하고 싶다.
- 3 • 사는 것, 생각하는 것이 지금보다 많이 여유롭고 깊어져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4 • 깜깜한 새벽부터 일어나 하루를 깨우는 닭처럼, 더욱 부지런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A



클 송장현 선임행정원
대외협력과
jhsong@kisti.re.kr

대외협력과장
연구원 사업성과 홍보 및 대내·외 커뮤니케이션 활동 지원

- 1_2004년 나의 2대 뉴스는?
- 2_2005년 나의 2대 뉴스는 '이것' 이었으면 좋겠다?
- 3_10년 뒤 나의 모습을 짧게 묘사해 본다면?
- 4_나와 닭의 닭은 점?

- 1 • 관리자의 길로 들어서다.
연구원 입사 10년 만에 관리자의 길로 들어섰다. 개인의 전문성 보다 조직의 팀워크를 먼저 생각하고, 한번 고민할 것을 두 번 아니 세 번 이상 고민하며 보냈다. 중간 관리자의 고충과 보람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낀 한 해였다.
- 술과 친해지다.
엄청나게 술을 많이 마셨다는 게 기억에 남는다. 태어나서 2003년까지 마신 술보다 2004년 한 해 동안 마신 술의 양이 더 많았던 것 같다. 대외 홍보를 하다 보니, 오라는 곳은 많지 않아도 가야만 하는 곳은 많았기 때문. 몸은 축났지만 술자리에서 쌓은 언론사 기자들, 홍보 관계자들과의 정분(?)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재산이 될 듯 하다.
- 2 • '역시 KISTI는 다르다' 는 말을 듣고 싶다.
우리 연구원에서 올 해들어 새롭게 시작하는 일들이 참 많다. 그런 업무를 대외적으로 잘 홍보해 연구현장의 고객들에게 '꼭 필요한 연구소임에 틀림없다', '역시 KISTI는 다르다' 는 이야기를 듣고 싶다.
- English Power를 기르고 싶다.
영어실력을 쌓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 해외출장을 나가면 늘 하게 되는 결심 '돌아가면 영어공부 열심히 해야지' 에 대한 실천을 꼭 하고 싶다. 코쟁이를 기죽일 정도는 아니더라도 'KISTI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연구소' 다 라는 것을 외국인에게 자연스럽게 자랑할 정도는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올 해 목표다.
- 3 • 10년 뒤에도 지금처럼 열심히, 아니 더 열정적으로 KISTI를 위해 일하고 있는 KISTI맨으로 살고 있었으면 좋겠다.
- 4 • 닭처럼 새벽잠이 없다. 나 때문에 아침마다 늦잠 한 번 잘 수 없는 가족들은 참 곤욕일 것이라고 생각한다.